

1) 서울뉴스통신_한경대 스마트물류센터, 'Space Beacon' 상용화

서울뉴스통신

정치 경제 사회 전국 문화 연예·스포츠 IT 국제 I am Healthy 오피나

IT한경대 스마트물류센터, 'SPACE Beacon' 상용화

경기서남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 snakorea.ro@gmail.com

승인 2015.01.26 13:15:50🔍 📄 📧 📧 📧

【안성=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국립 한경대학교는 26일 교내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김용태 교수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공간소프트가 협력해 비콘(Beacon) 기술을 적용한 위치 기반 고객 안내 플랫폼 'SPACE Beacon'을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비콘은 전력 소모가 적은 블루투스 4.0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GPS에 비해 측위에 따른 오차가 수 cm 수준으로 매우 정교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며, 동전 크기로 장치를 개발할 수 있어 어느 곳에도 설치하기 용이하다.

김 교수는 “물류학교에서 무인이송로봇의 자율 주행을 위한 로봇의 위치인식 기술을 연구하다가 기존의 로봇위치인식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위치인식 기술인 스페이스 비콘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경대학교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와 공간소프트가 개발한 스페이스 비콘은 병원, 대중교통, 골프장, 카페, 백화점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동원체크와 위치 안내 서비스, 안심 쿠키 서비스, 상품 광고 푸시 서비스, 모바일 회원권, 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 비콘 활용의 대표적인 예는 어린이집 안심 서비스 시스템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탈하면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유무선 중계기에 블루투스 태그가 감지돼 담당 선생님께 즉시 알림이 전송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무단이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가 비콘 기기의 호출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 선생님께 호출 사실과 정확한 호출위치를 즉시 안내할 수 있다.

한편, 통학차량에서는 승·하차 체크 기능과 미하차 어린이 알림 기능, 차량 안전 호출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치매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콘 기술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치매 환자가 병원을 이탈하거나 화장실 등에 갈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한경대와 공간소프트는 어린 아이와 환자들도 편리하게 비콘 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목걸이, 팔찌, 시계 등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그 밖에도 비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많다.

병원에서는 자동 동원체크 및 진료실 안내, 간호사 호출,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는 작년 4월부터 비콘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대중교통에서는 탑승 차량 정보 표출과 탑승 정보 메시지 지인 발송, 유실물 등록, 불명사황 접수, 요금 정보, 택시 호출, 안전하차 기능 등이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마트에서는 상품 정보 및 할인쿠폰 자동 전송 서비스를, 골프장이나 리조트에서는 회원권리와 길 안내, 시설 이용권 발권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태범석 한경대 총장은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는 2011년 경기도지역협력센터(GRRC)로 선정된 기관으로, 산업적 피급 효과가 높은 핵심 물류기술을 산학 공동 프로젝트로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비콘 기술을 활용한 성과를 내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2) 안성뉴스24_한경대 위치 기반 플랫폼 'SPACE Beacon' 상용화

ANSEONG REAL TIME NEWS
NEWS 

안성뉴스24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편집 : 2015.1.30 금 14:36 로그인 | 회원가입 | 신문사소개 | 보

종합뉴스 지역소식 오피니언 시민마당

정치행정 | 사회 | 사건사고 | 교육/청소년 | 문화/스포츠 | 사람들 | 카메라고발

종합뉴스 교육
한경대 위치 기반 플랫폼 'SPACE Beacon' 상용화
최대 cm 단위 위치측정 가능해 다양한 분야서 활용 가능
한기진 편집국장 | nansatan@naver.com

승인 2015.01.26 12:12:01  URL 복사

▲국립한경대가 위치 기반 안내 플랫폼 'SPACE Beacon'을 상용화했다. ©안성뉴스24, 안성복지신문

국립한경대가 비콘(Beacon) 기술을 적용한 위치 기반 고객 안내 플랫폼을 상용화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경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주)공간소프트가 협력해 비콘 기반 고객 안내 플랫폼 'SPACE Beacon'을 상용화했다.

비콘이란 근거리 무선통신 블루투스(Bluetooth)의 일종으로, 최대 cm단위로 위치측정이 가능한 기술이다. 동전 크기 정도의 소형으로 장치를 개발할 수 있어 어느 곳이나 설치가 용이하다.

'고객 안내 플랫폼 'SPACE Beacon'은 내부에 장착된 비콘과 센서를 기반으로 병원, 대중교통, 백화점 등 사업장에서 등원체크와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안심귀가 서비스나, 상품광고 푸시 서비스, 모바일 회원권, 호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유무선 중계기 블루투스 태그가 이를 감지해 보육교사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한다.

대구 영남대 병원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비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출퇴근 체크와 진료실 안내, 간호사 호출,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다.

상용화를 앞둔 'SPACE Beacon'은 기존 물류창고 무인이송로봇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율주행을 위한 위치인식기술을 연구하다 개발하게 됐다.

태범석 한경대 총장은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물류기술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기술을 활용한 성과를 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3) OBC더원방송_국립한경대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 'SPACE Beacon' 상용화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OBC News Portal website. The main article is titled "국립한경대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 'SPACE Beacon' 상용화". The article text is as follows:

국립한경대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 'SPACE Beacon' 상용화

[김경훈 기자] 국립 한경대학교는 26일 교내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김용태 교수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주)공간소프트가 협력해 비콘(Beacon) 기술을 적용한 위치 기반 고객 안내 플랫폼 'SPACE Beacon'을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비콘은 전력 소모가 적은 블루투스 4.0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GPS에 비해 측위에 따른 오차가 수 cm 수준으로 매우 정교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며, 동전 크기로 장치를 개발할 수 있어 어느 곳이나 설치가 용이하다.

김 교수는 "물류창고에서 무인이송로봇의 자율 주행을 위한 로봇의 위치인식 기술을 연구하다가 기존의 로봇위치인식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위치인식 기술인 스페이스 비콘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대학교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와 공간소프트가 개발한 스페이스 비콘은 병원, 대중교통, 골프장, 카페, 백화점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등원체크와 위치 안내 서비스, 안심 귀가 서비스, 상품 광고 푸시 서비스, 모바일 회원권, 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어린이집·치매 요양원 안심 서비스 시스템

스페이스 비콘 활용의 대표적인 예는 어린이집 안심 서비스 시스템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탈하면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유무선 중계기에 블루투스 태그가 감지돼 담당 선생님께 즉시 알람이 전송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무단이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가 비콘 기기의 호출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 선생님에게 호출 사실과 정확한 호출위치를 즉시 안내할 수 있다.

한편, 통학차량에서는 승·하차 체크 기능과 미하차 어린이 알람 기능, 차량 안전 출발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치매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콘 기술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치매 환자가 병원을 이탈하거나 화장실 등에 갇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한경대와 공간소프트는 어린 아이와 환자들도 편리하게 비콘 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목걸이, 팔찌, 시계 등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 그 외 병원·대중교통·백화점·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

그 밖에도 비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 병원에서는 자동 등원체크 및 진료실 안내, 간호사 호출,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는 작년 4월부터 비콘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4) 일간투데이_국립한경대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 위치 기반 안내 플랫폼 'SPACE Beacon' 상용화

일간투데이

www.itoday.co.kr

정치 경제 산업 부동산 라이프 국제 사회-전국 피플 연예-스포츠
전체기사 정치일반 청와대 총리실 국회 정당 북한 통일

사회-전국
수도권

국립한경대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 위치 기반 안내 플랫폼 'SPACE Beacon' 상용화

어린이집 병원,대중교통,골프장,백화점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

유기영 기자 | sinmun11@hanmail.net

승인 2015.01.26 11:18:23

[안성=일간투데이 유기영 기자] 국립 한경대학교(총장 태범석)는 26일 교내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김용대 교수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주)공간소프트가 협력해 비콘(Beacon) 기술을 적용한 위치 기반 고객 안내 플랫폼 'SPACE Beacon'을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비콘은 전력 소모가 적은 블루투스 4.0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GPS에 비해 속위에 따른 오차가 수 cm 수준으로 매우 정교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며, 동전 크기로 장치를 개발할 수 있어 어느 곳이나 설치가 용이하다.

김 교수는 "물류창고에서 무인이송로봇의 자율 주행을 위한 로봇의 위치인식 기술을 연구하다가 기존의 로봇위치인식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위치인식 기술인 스페이스 비콘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대학교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와 공간소프트가 개발한 스페이스 비콘은 병원, 대중교통, 골프장, 카페, 백화점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응원체크와 위치 안내 서비스, 안심 귀가 서비스, 상품 광고 푸시 서비스, 모바일 회원권, 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어린이집 치매 요양원 안심 서비스 시스템-

스페이스 비콘 활용의 대표적인 예는 어린이집 안심 서비스 시스템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탈하면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유무선 중계기에 블루투스 태그가 감지돼 담당 선생님께 즉시 알림이 전송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무단이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가 비콘 기기의 호출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 선생님에게 호출 사실과 정확한 호출위치를 즉시 안내할 수 있다.

한편, 통학차량에서는 승·하차 체크 기능과 미하차 어린이 알림 기능, 차량 안전 출발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과 제공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치매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콘 기술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치매 환자가 병원을 이탈하거나 화장실 등에 갈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한경대와 공간소프트는 어린 아이와 환자들도 편리하게 비콘 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목걸이, 팔찌, 시계 등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그 외 병원 대중교통 백화점 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

그 밖에도 비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 병원에서는 자동 응원체크 및 진료실 안내, 간호사 호출, 모바일 진료카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는 작년 4월부터 비콘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대중교통에서는 탑승 차량 정보 표출과 탑승 정보 메시지 지인 발송, 유실물 등록, 불편사항 접수, 요금 정보, 택시 호출, 안전하차 기능 등이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마트에서는 상품 정보 및 할인쿠폰 자동 전송 서비스를, 골프장이나 리조트에서는 회원권리와 길 안내, 시설 이용권 발권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태범석 한경대 총장은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는 2011년 경기도지역협력센터(GRRC)로 선정된 기관으로, 산업적 파급 효과가 높은 핵심 물류기술을 산학 공동 프로젝트로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비콘 기술을 활용한 성과를 내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5) 경기일보_'스마트 위치인식' 아이·환자 안심케어

kyeongin.com
경기일보

뉴스 오피니언 TV경인 리얼영상 스포츠 연예 금요와이드 포토

속보 ▶ <아파트 시세> 서울 1월 아파트 전셋값 13년 만에 최고 지면보기 | 구독신청 | 기사제

▶ 뉴스 > 지역종합 > 안성

[안성]'스마트 위치인식' 아이·환자 안심케어

한경대, 비콘기술 상용화... GPS보다 정교한 측정 가능

이명중 lmj@kyeongin.com 2015년 01월 27일 화요일 09:20면 작성 : 2015년 01월 26일 20:08:03 월요일

댓글 0 f t n v p o 단축url 지면보기 폰트 + - ㅁ ㅂ ㅅ

국립 한경대학교(총장 태범석)는 26일 교내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김용태 교수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주)공간소프트가 협력해 비콘(Beacon) 기술을 적용한 위치 기반 고객 안내 플랫폼 '스페이스 비콘(SPACE Beacon)'을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비콘은 전력 소모가 적은 블루투스 4.0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GPS에 비해 측위에 따른 오차가 수cm 수준으로 매우 정교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며, 동전 크기로 장치를 개발할 수 있어 어느 곳이나 설치가 용이하다.

김 교수는 "물류창고에서 무인인송로봇의 자율 주행을 위한 로봇의 위치인식 기술을 연구하다가 기존의 로봇위치인식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위치인식 기술인 스페이스 비콘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대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와 공간소프트가 개발한 스페이스 비콘은 병원, 대중교통, 골프장, 카페, 백화점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등원체크와 위치 안내 서비스, 안심 귀가 서비스, 상품 광고 푸시 서비스, 모바일 회원권, 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이스 비콘 활용의 대표적인 예는 어린이집 안심 서비스 시스템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탈하면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유무선 중계기에 블루투스 태그가 감지돼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람이 전송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무단이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아이가 비콘 기기의 호출버튼을 클릭하면 담당 교사에게 호출 사실과 정확한 호출위치를 즉시 안내할 수 있다.

치매 요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 병원을 이탈하거나 화장실 등에 갇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한경대와 공간소프트는 어린 아이와 환자들도 편리하게 비콘 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목걸이, 팔찌, 시계 등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태범석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비콘 기술을 활용한 성과를 내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6) 기호일보_한경대, '로봇 위치 인식 보완' 비콘 기술 상용화 성공

기호일보

kihoilbo.co.kr

인기검색어 : 인천, 아시안게임

통합검색

검색

상세검색

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사람

기호프리즘

기호포토

특집

PDF

전체기사 | 경제 | 정치 | 사회 | 문화 | 교육 | 국제 | 지역 | 스포츠 | 레저·엔터테인먼트 | 사진

기사제보 | 자유게시판

홈 > 뉴스 > 경제 > 경기

뒤로가기 >

메일보내기 | 오픈소셜 | 오픈링크 | 인쇄 | 확대 | 축소

한경대, '로봇 위치 인식 보완' 비콘 기술 상용화 성공

산학 공동 프로젝트 일환 병원 등 다양한 사업장서 등원체크·안심귀가 지원

2016년 01월 27일 (화) | 6면

김진태 기자 | jtk@kihoilbo.co.kr

국립 한경대학교는 26일 교내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 김용태 교수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주) 공간소프트가 협력해 비콘(Beacon) 기술을 적용한 위치 기반 고객 안내 플랫폼 '스페이스 비콘(SPACE Beacon)'을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스페이스 비콘은 병원, 대중교통, 골프장, 카페, 백화점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등원 체크와 위치 안내, 안심 귀가, 상품 광고 푸시, 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한경대와 공간소프트는 어린이와 환자들도 편리하게 비콘 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목걸이, 팔찌, 시계 등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김용태 교수는 "물류창고에서 무인 이송로봇의 자율 주행을 위한 로봇의 위치 인식 기술을 연구하다가 기존의 로봇 위치 인식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위치 인식 기술인 스페이스 비콘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 비콘의 활용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탈하면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유·무선 중계기에 블루투스 태그가 감지돼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며, 이를 통해 어린이의 무단 이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가 비콘 기기의 호출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교사에게 호출 사실과 정확한 호출 위치를 즉시 안내할 수 있다.

통학차량에서는 승하차 체크와 미하차 어린이 알림, 차량 안전 출발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치매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콘 기술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치매 환자가 병원을 이탈하거나 화장실 등에 갈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에서는 작년 4월부터 비콘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에 있다.

태범석 한경대 총장은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는 2011년 경기도지역협력센터(GRRC)로 선정된 기관으로, 산업적 파급 효과가 높은 핵심 물류 기술을 산학 공동 프로젝트로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비콘 기술을 활용한 성과를 내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